

보험

산업이슈

2023. 07. 20

상품 합리화 조치, 단기납 종신 매출에 영향 예상

News

운전자, 어린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합리화: 금감원에서는, “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 상품 개발 ·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는 배경하에 운전자, 어린이, (무 ·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되며, 15세 초과 가입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자녀’ 상품명을 쓸 수 없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이 제한된다. 이러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기존 판매상품은 8월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Comment

손보상품, 운전자 및 어린이보험 영향은 크지 않아: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도 80세/100세 만기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는 했지만, 감독당국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유 때문에 찾는 고객이 별로 없어서 실제 판매는 주로 20년 이내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자녀보험의 경우 15~35세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회사들이 ‘MZ대상 연령특화상품’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여지는 충분하다. 다소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상품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손보사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생보사, 올해 늘어났던 매출 4Q23부터 감소 예상: 주로 5년납으로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무 · 저해지 조건을 통해 납입완료 시점에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8~10% 수준의 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다. 2023년 들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비중이 50%를 넘었고, 지난 2Q23에는 업계 대형사들도 경쟁에 뛰어들어 매출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든 단기납 종신보험이 잘못 판매된 것은 아니겠으나, 감독당국이 저축성으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게 되면 업계 전체적으로 신계약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ction

손보보다는 생보 신계약 매출의 영향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보험의 보험만기가 길다는 점과 성인담보가 탑재되었다는 부분도 당초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가입연령과 ‘어린이/자녀’ 명칭 사용 제한만으로 한정되었다. 아마도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제한된 상품들이 손보사의 주력 상품군이 아니거나 새로운 상품 개발로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손보사 신계약 매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최근 신계약 매출이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인해 급증한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9월 이후 신계약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8월말까지 기존상품 개정 필요

도표 1. 금감원의 불합리한 보험상품구조 개선 내용

	운전자보험	어린이 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현황	보험기간 최대 100세	가입연령 35세까지 확대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문제점	- 관련법규개정, 적정보장한도 변경 가능성 - 80세 이상 초고령자 운전 어려워	- 어린이 발생빈도 희박한 성인질환 담보 부가 - 어린이 특화상품 성인 가입	- 단기 환급률 강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 - 납입기간 종료 시 승환 유도 가능성
추진방안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최대 가입연령 15세 초과 시 '어린이/자녀 보험' 등 상품명 사용 제한	저축성보험처럼 설계 금지

자료: 금감원 DB금융투자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보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20년납으로 판매되었고, 납입기간이 짧더라도 10년 정도였다. 죽을 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납입기간이 짧아지면 결국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높아져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단기납 종신이 크게 늘었는데, 단기납이라고 하면 10년 이하이지만 최근 판매되는 상품은 5년납이 주종이다. 같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크게 짧아진 것이다. 당연히게도 고객이 원하는 보장이(즉 사망보험금) 같다면, 고객이 보험회사에 내야하는 돈은, 현가로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20년에 내야할 돈을 5년에 내는 셈인데,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는 어림셈으로 따져도 대략 3.5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20년납이 매월 10만원이었다고 하면, 5년납으로는 매월 35만원 정도 내야하는 셈이다.

도표 2. 종신보험 납입기간별 보험료 비교 예시

* 30세 남성 종신보험 1,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	총 납입 보험료
5년 납입	87,900원	527만원
10년 납입	46,600원	559만원
20년 납입	26,100원	626만원
30년 납입	19,400원	698만원

자료: <https://new-m.pay.naver.com/mydata/myasset/insurance/contents/70>, DB금융투자

도표 3. 단기납 종신보험 납입원료, 유지보너스 비교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납입원료 · 유지보너스 비교				
보 영 사	상 품 명	5년납	7년납	10년납
D B 생 명	뉴-일치고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	11.8%	16.9%	24.1%
동 양 생 명	수호천사알뜰플러스종신보험	5%	19.1%	21%
K D B 생 명	KDB비팀목플러스종신보험	15%	15%	15%
메 트 라 이 프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Plus	12%	14%	14%
미래에셋생명	미래를선택하는종신보험	-	13%	13%
푸 분 현 대	MAX원픽종신보험	9%	11%	13%
교 보 생 명	실속종신PLUS	12%	13.5%	11.8%
D G B 생 명	당당한인생종신보험	10%	10.6%	10.9%
A B L 생 명	THE드림종신보험	9%	10%	10%
삼 성 생 명	행복종신2형	9.2%	9.5%	9.5%
신 한 라 이 프	신한터드림종신보험	8%	8%	8%
한 화 생 명	H3종신보험	12.8%	12.9%	-

* 일반성사, 가입금액 1억원 기준 / 자료: 각사 공식허합 대한금융신문

자료: 대한금융신문(2023-05-11), DB금융투자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굳이 돈을 더 내가면서 단기납 종신을 가입하는 이유는 환급율이 좋아서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보통 5년납 종신의 경우 저해지로 설계해서 5년 납입완료 시점에 100% 이상 환급되도록 설계된다. 여기에 납입완료 보너스를 8~10% 정도 주는게 일반적이니,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오게 된다. 물론 여기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추가로 유지 보너스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보장은 남지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축성 팔아서 유동성 끌어들이느니, 보장성으로 CSM을 확보하는게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수익률만 따지면 납입기간이 지난 직후, 즉 5년이 살짝 지나서 찾는게 수익률이 가장 높다. 그래봐야 정기예금 수준일지라도 어쨌건 수익률은 나름 괜찮게 나온다.

하지만 모든 단기납 종신보험이 환급률만을 따져서 가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납입기간에 도달하지 마자 모든 고객이 해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약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효시격인 KB생명 ‘7년의 약속’ 이 출시된 것이 2019년 3월이다. 그리고 2020~2021년 이후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주로 5년납이었다. 올해 엄청나게 판매가 늘어난 단기납 종신보험도 5년납 상품들이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우리도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일정부분 시장 수요에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판매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단기납 종신보험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지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생보사들의 매출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이익 비율 (2023-07-05 기준) - 매수(91.22%) 중립(8.78%) 매도(0.0%)

가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